

대졸자의 첫 직장의 질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배경(SES)과
개인적 노력 요인 탐색 연구: 청년 대학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2019 년 GOMS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도유영*, 서찬교**, 이현빈***

I. 서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입과 자산은 한 인간의 생활의 기반일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 행복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에게 자산을 물려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부를 획득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다. 과거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던 급속 경제성장기에는 대졸자들의 수가 많지 않아 취업이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고(1990 년 기준 대학진학률 27.1%¹) 금리가 높아 ² 계층 간의 이동이 수월했다. 취업하여

* 송실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과 1 학년.

** 송실대학교 행정학과 4 학년.

*** 송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4 학년. 팀장(gblawhblee@gmail.com)

¹ e-나라지표(2023), 취학률 및 진학률 페이지,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12.31. 접속)

² 이태호, "이자 30% 시절 아십니까...'한강의 기적' 저물자 고금리 시대도 '굿바이'", 한국경제, 2019.11.2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112267931>

매달 월급을 고금리의 예금과 적금에 넣어 전세금을 모으고, 전세 평수를 조금씩 늘려가며 결국 자가 마련에 성공해 정착하는 것이 평범한 서민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었다³.

세계적인 양극화 현상에서 한국은 그 첨단을 달리고 있다⁴. 먹고 살기 위한, 더 나아가 더 높은 계층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인 '질 좋은 일자리 취업'은 청년들의 최우선 목표가 되었다. 2020년부터 대학 진학률이 70%를 상회하는 데 비해(국가지표체계, 2023) 청년 대학 졸업자의 2021년 실업률과 고용률은 각각 7.8%와 44.2%에 불과(박준우 등, 2023)하다.

금리는 예전과 같지 않고,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이 심화되었으며⁵, 집값 폭등으로 신세대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 더하여 폭등 이후 이어진 부동산 하락 기조로 전세 제도의 리스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⁶. 부모 세대의 성공 공식을 따라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공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명한 취임사나(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⁷), 2021년 양 대선 후보 모두 '공정성'을 강조한 공약을 내세운 데에서 이를 알 수 있는데⁸, 이 현상은 사회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예전과 달리 기회가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 부모의 배경으로 대표되는 '수저론'과 '흙수저 빙고'의 등장⁹, 이를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힘들다는

³ "[부동산백서] '주거사다리' 전세제도 어쩌다 사기온상이 됐을까", 한국부동산뉴스, 2023.04.25, <https://www.kar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3>

⁴ 류이근, "한국 소득 불평등, OECD 2 번째로 빠르다", 한겨레, 2023.04.10, 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1087168.html

⁵ 정윤희, "이창용 "인플레이션 여전히 긴장, 라스트 마일 쉽지 않을 것", SBS, 2023.12.20, <https://biz.sbs.co.kr/article/20000149430>

⁶ 박우인, "'2400억' 구리 전세사기 일당 총책 징역 15년 구형", 서울경제, 2023.12.12,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HDMED3R>

⁷ 박찬수, "[박찬수 칼럼] 2012년 정치인 문재인이 주목한 '공평과 정의'", 한겨레, 2020.09.23,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3368.html>

⁸ 고철종, "[깊은 EYE] 이재명·윤석열표 '공정성', 같은 단어 다른 의미", SBS, 2021.12.0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62752&mlink=COPYPASTE&cooper=SBSN EWSEND

⁹ 조혜경 등, "[젊어진 수요일] 농담인데 불편하네 '수저 계급론'", 중앙일보, 2015.10.28, <https://www.joongang.co.kr/article/18949618#home>

박탈감과 무력감이 이 세대를 지배하고 있다¹⁰¹¹. 사회의 동력 상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과연 이런 인식이 실제와 같은 지 사회과학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는 개인의 특성, 출신 대학, 지역적 특성과 부모의 소득 등 다양한 독립변수를 고려하여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종속 변수를 주로 '취업 여부'로만 설정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단순히 '취업'의 기준을 만족했다고 해서 그 취업자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과거에는 소득(경제학적 관점), 사회적 위세(사회학적 관점)이나 주관적 만족도(심리학적 접근)를 기준으로 보았는데, 각각 '비임금적 보상'을 고려하지 않거나, 같은 직군 내의 다양한 일자리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어, 임금이나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신의 주관적 평가도 포함하는 등 다양한 척도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방하남, 이상호, 2006).

한국의 경우 IMF 이후에는 직장의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기조가 생겨¹² 전문직, 공무원, 교사 등이 각광받았다. 그러나 예로 든 직업 중 공무원과 교사는 기피직종으로 바뀌었는데, 저임금, 복지 악화, 경직된 조직문화, 지나친 민원과 끝없는 책임 등 소득뿐만 아니라 '직장의 질'도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¹³¹⁴.

¹⁰ 정유미, "구직자 70% "부모능력과 가정환경 취업성공에 영향", 경향신문, 2021.12.13,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112130934001#c2b>

¹¹ "298 명 설문...50% "가정환경 탓에 박탈감 느껴", 신하영, "대학생 4 명 중 1 명 "부모 배경 원망해 봤다"", 이데일리, 2016.11.0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60406612843752&mediaCodeNo=257>

¹² "...직업 안전성'에 대한 갈망이 IMF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던 당시 풍조...", 김서영, "8 월 18 일 IMF 가 바꿔놓은 인기 직업", 경향신문, 2018.08.17,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808172356001#c2b>

¹³ 김나연, "최고 선호직업 옛말...교사 87% "교직 떠날까 고민했다", 경향신문, 2023.05.10,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101445001#c2b>

¹⁴ 노태하, "공무원 선호 열풍이 시들해진 까닭은", 스카이드일리, 2022.08.18,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64404

따라서 본 연구에 있어서 핵심은 취업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드러내는 설문 항목 중 '부모의 배경'과 '개인의 노력'이라는 대립적 요소를 적절히 골라내고, 단순한 취업 여부가 아니라 취업한 일자리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 계층, 그 중에서도 취업의 최전선에 있는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GOMS 연구의 최신 데이터(2019 년)를 바탕으로 SPSS 프로그램을 활용,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실제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데에 부모의 배경과 개인적 노력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취업 과정에서 대학 졸업자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소로 인한 불공정성이 실재하는 지, 그리고 본인의 노력이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정확한 국가 정책을 교육, 고용과 복지 면에서 세울 수 있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지원이나 통제의 필요가 있는지, 어떤 부분을 정확히 지원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취업 성과를 질적인 측면에서도 평가하여 통계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설과 관련된 이론적, 사회적 배경

1) 양극화

양극화(兩極化)는 '중간 계층 없이 상위와 하위 계층으로 물리는 현상'이다. 사회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양극화는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자산 격차가 무려 35 배라는 사실이나, 2030 청년 가구 계층의 상위 20%, 하위 20% 자산 차이도 3 배가 넘는다는 사실은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려주고 있다¹⁵.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 더하여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양극화가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EBS 에서 방영한 다큐 <교육격차>(23. 4. 19. ~ 4. 27. 방영)에서는 강남 대치동의 학원가를 다니는 학생들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1 달에 적게는 백만원 단위에서 1,500 만원까지 학원비를 부담한다고 말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1 달 평균 소득은 약 479 만원이다. 1,500 만원이라는

¹⁵ 한지연, "[친절한 경제] 2030, 소득보다 자산에서 '큰 차이'...양극화 심화 이유는", SBS, 2022.05.1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273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금액은 평균치에서 3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부어가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정은, 더욱 좋은 교육을 받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광복 이래로, 좋은 학력이 좋은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시대는 IMF 외환위기가 오기 전까지 40 년 넘게 이어졌다. IMF 로 한 차례 충격이 오긴 했으나, 2023 년 현재에도 여전히 대졸자 이상이 평균적으로 고소득을 거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학력과 부모의 배경 또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부모의 SES 와 취업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공정과 평등의 시대적 요구, 만족하지 못하는 사회 환경

대한민국 헌법 제 11 조에는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헌법 제 31 조에는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도 규정되어 있다. 2023 년이 된 지금 이 개념들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부족하다.

수도권(특히 강남 등)의 지역과 지방 지역에서 교육 인프라에 접근할 환경 자체부터 차이 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집에서 걸어가거나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거리에 대치동 학원가가 있는 학생과, KTX 나 시외버스 등을 이용해야 대치동을 갈 수 있는 학생의 환경은 명백히 다르다.

2023 년 정부에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외치며 '수능 킬러 문항'을 없애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천명했지만¹⁶, 막상 수능시험이 끝나고 주목받은 '수능만점자'와 '수석'은 모두 '시대인재'라는 고가의 대치동 입시학원 출신이었다¹⁷. '시대인재'를 다니는 비용은 월 300 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 근처에서 살지 않는 학생들이 상경하여 거주하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월 400~500 만원이 넘을 것인데,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절망적인 비용이다.

¹⁶ 윤수현, "[아침신문 속아보기] 킬러문항 배제에도 '불수능'... 수학 22 번 "사실상 킬러문항" 비판도", 미디어투데이, 2023.11.17,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871>

¹⁷ 권한울, "수능 만점자도 전국 수석도...정부가 저격한 대치동 '이곳' 출신", 2023.12.09,
<https://www.mk.co.kr/news/society/10894506>

¹⁸ 윤상진, " 학원비 월 300 만원에도 학생 줄서... 몸집 키우는 '강남 빅 3'",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3/07/24/5ZWR6XSX3JBAZLKHEFQ32ONDSE/>

부모의 배경은 취업과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펙 만들기'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교수의 고등학생 아들이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등재되어 연구비 환수를 받은 사례가 있고, 법원 역시 그 자녀가 논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¹⁹.

2. 선행 연구

본 연구와 관련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전부 GOMS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 선행연구

연구문제(연구목적)	연구방법					출처
	연구대상	통계자료	통계분석	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녀의 학벌을 통제 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각각 자녀의 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는가?	전문대학 또는 일반대학의 졸업예정자 혹은 직전년도 기졸업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이하 GOMS) 2014-2019	기술통계, 로지스틱 회귀분석	부모소득, 부모 학 력수준	취업여부	박지성, 옥지호 (2022), 부모 배경 요인이 실제 취업 에 미치는 효과: 부모 소득과 학력 수준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는 문지, 529-540
전국을 5대 권역으로 구분했을 때, '개인적 특성', '대학의 특성', '진로선택 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 '취업준비 활동 경험' 등의 변수가 취업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위와 같음	GOMS 2019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개인적 특성(나이, 전공계열, 성별 등 7가지), 대학의 특 성(학교 유형 및 국공립여부), 취업 준비 행동적 특성 (학점, 인턴, 자격 증 등)	취업여부	박준우, 여찬구 (2022), 대학 청년 졸업자의 취업 성 공 결정요인 분석: 전국 5대 권역을 중심으로, 기업과 혁신 제45권 4호, 3-31

¹⁹ 김희진, "논문 공저자에 고교생 아들 올린 교수...법원 "연구 참여 제한·비용 환수 정당", 경향신문, 2022. 11. 21.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1212123025>

연구문제(연구목적)	연구방법					출처
	연구대상	통계자료	통계분석	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개인적 특성’, ‘대학의 특성’, ‘진로선택 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 ‘취업준비 활동 경험’등의 변수가 취업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위와 같음	GOMS 2019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학점, 어학연수 경험 등 9가지), 대학의 특성(대학의 유형, 국공립, 사립여부),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 취업준비활동 경험	취업여부	박준우, 여찬구, 우승현(2023), 진로탐색, 취업준비와 취업성공의 관계: 대학 청년 졸업자를 중심으로, 기업과 혁신 제46권 2호, 69-91
‘개인특성’, ‘가구특성’, ‘취업준비행동’ 등이 ‘괜찮은 일자리’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5세 미만의 청년층 임금근로자로 조사 당시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에 근무중인 자	GOMS 2015-2018	선형확률모형 분석	개인특성(성별, 전공개열, 학교소재지), 가구특성(부의 학력, 모의 학력, 부모 월평균 소득), 취업준비행동(복수전공, 학점, 어학연수, 인턴, 토익 고득점, 자격증, 취업교육 등)	괜찮은 일자리 취업(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 여부)	안현수(2020), 대졸자 괜찮은 일자리 취업결정요인의 비중 변화 분석 -능력중심 채용제도 변화 전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성 외(2022)는 자녀의 학벌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배경요인이 자녀의 취업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부모의 소득과 학력수준이 자녀의 취업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고, 소득은 예상대로 정의 영향이 있었으나 학력수준의 경우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저자는 이를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 자녀가 고시공부, 유학, 대학원 진학 등을 선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박준우 외(2022)는 전국을 5 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대학 청년 졸업자의 취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취업자의 나이, 부모의 소득은 정의 영향이 있었고, 부모의 자산은 부의 영향이 있었다. 전공의 경우 사회, 공학, 예체능 계열은 정의 영향이 있었지만 교육 계열은 반대였다. 직업 능력 향상 교육과 관련 전공 자격증 취득은 정의 영향이, 일반 자격증 취득은 부의 영향이 있었다. SSAT, 공모전, 대외활동은 정의 영향, NCS와 외모관리는 부의 영향이 있었다.

박준우 외(2023) 역시 전국을 5 대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였다. 취업자의 연령과 부모의 경제력이 취업 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4 년제 대학과 교육대의 경우 2~3 년제에 비해 취업성공률이 낮았다. 국공립대가 사립대보다 취업성공률이 높았으며, 직장체험, 면접, 이력서 작성, SSAT, 봉사활동, 공모전, 대외활동, 이력서, 면접활동 등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자는 부모의 경제력이 직업탐색비용과 훈련비용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하며, 2~3 년제 대학은 취업과 현장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인 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각종 취업관련 활동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와 기업 등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상의 세 연구는 모두 종속변수를 단순히 '취업여부'로 두어, 취업의 질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안현수 외(2020)는 이런 한계점을 넘어 공공기관과 상시직원 수 1000 명 이상의 대기업을 “괜찮은 일자리”로 규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성일수록, 대학 소재지가 서울권일수록, 학점이 높을수록, 어학연수 경험이 있을수록, 토익이 고득점(800 점 이상)일수록 괜찮은 일자리의 취업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스펙중심 채용시기(GOMS 2012)와 능력중심 채용시기(GOMS 2017)를 비교하였을 때 각각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는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였으나,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경우도 근무환경으로 많은 비판을 받는 지금의 현실을 볼 때 아쉬움이 있었다.

III.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자료이다.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들을 모집단으로 하고, 그 중 약 4%에 해당하는 18,000 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신규로 대졸자들을 조사하고 2 년 뒤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대졸자의 교육과정, 구직활동, 일자리경험, 직업훈련, 자격증, 개인신상정보 및 가계배경 등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이다.(구성우, 2015)

조사 개편으로 2020 년 졸업자 조사(2019GOMS) 완료 이후, 조사가 잠정 중단되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2019GOMS1 이고 2019 년 졸업한 대졸자를 대상으로 1 회 추적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취업을 위한 개인의 노력 요인에 해당하는 취업 준비 활동 경험 여부, 청년취업프로그램 참여, 토익 점수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라고 볼 수 있는 부모의 학력, 소득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졸업 후 첫 일자리의 만족도, 복지 혜택, 일평균 근로 소득을 조사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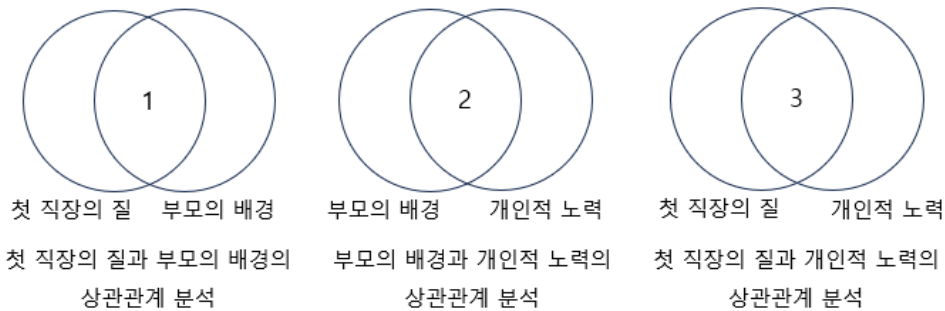
2. 연구모형 및 분석변수

대졸자의 첫 직장의 질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배경(SES)과 개인적 노력 요인을 실증 분석하기 위해 다중 상관관계 분석과 편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해 3 개의 요인 중 한 요인이 측정하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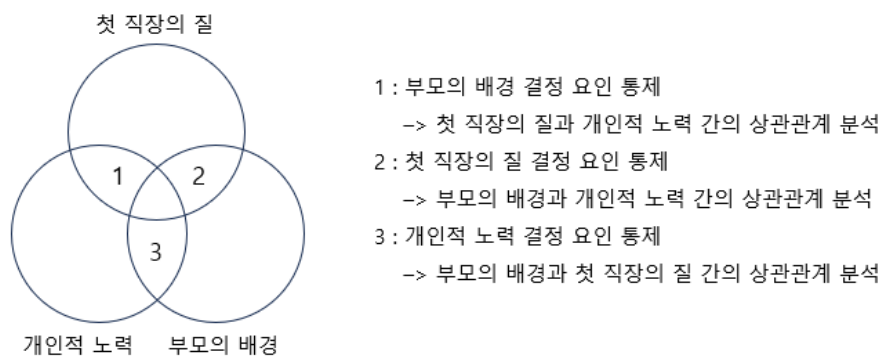
하는 나머지 두 요인에 해당하는 각 두 변인 사이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시킴으로써 양 변인 간의 엄밀한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이를 위한 통계분석 도구는 SPSS 18.0 을 이용하였다.

<그림 1>연구 변수의 연구모형 구성

다중 상관관계 분석



편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의 첫 직장의 질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배경(SES)과 개인적 노력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첫 직장의 질, 부모의 배경(SES), 개인적 노력 요인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 3 개의 요인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표 1>에서 첫 직장의 질은 첫 직장 만족도 평균, 첫 직장 혜택 수혜 여부, 첫 직장 월평균 근로 소득(만원)으로 선정하였다. 첫 직장 만족도 평균은 임금 또는 소득, 고용 안정성, 하고 있는 일의 내용(직무 내용), 근무 환경(시설, 안전, 위생상태 등), 일하는 시간(근로 시간, 근무 일수),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인간관계, 복리 후생 제도(사회 보험 및 부가급부), 인사체계(승진 제도),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하고 있는 일의 자율성과 권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하는 일과 자신의 적성, 흥미의 일치, 직무관련 교육 또는 훈련, 첫 직장(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주된 일(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첫 직장 혜택 수혜 여부는 법정퇴직금/퇴직연금, 유급휴가, 육아휴직, 시간외수당, 상여금, 산전후휴가를 본인이 수혜하였는지 여부를 모두 합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배경(SES)는 부모의 최종 학력 평균과 대입 당시 부모의 월평균 소득으로 선정하였다. 부모의 최종 학력 평균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 학력의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개인적 노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취업 준비 활동 경험 여부 평균, 토익 점수와 청년취업 프로그램 인지 여부 평균, 참여 횟수 총합, 참여 여부 총합, 관심 정도 평균을 선정하였다. 취업 준비 활동 경험 여부 평균은 NCS 시험 준비, 기업체 직무적성검사(SSAT 등) 공부, 영어 등 외국어 공부, 봉사활동, 공모전 수상, 자격증 준비, 대외활동(체험단, 마케터, 서포터즈 등), 외모관리(다이어트, 시술, 수술 등), 이력서 작성 및 면접훈련 교육, (모의)면접훈련 경험 여부의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청년 취업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항목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행정 인턴제(중앙 행정 기관, 공공 기관 등), 취업성공패키지_청년고용정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치단체 청년수당,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구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 구 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 대학청년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구직업 능력 개발 계좌제), 청년취업아카데미, 일학습병행제,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사업(K MOVE 등)으로 선정, 총 11 개의 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2> 첫 직장의 질, 부모의 배경(SES), 개인적 노력 결정 요인 변수 구성

측정요인		변인설명	측정방법	
첫 직장의 질	첫직장만족도평균	D31. <취업자 공통> 첫 직장(일자리) 만족도 1- 임금 또는 소득 D31. <취업자 공통> 첫 직장(일자리) 만족도 2- 고용 안정성 D31. <취업자 공통> 첫 직장(일자리) 만족도 3- 하고 있는 일의 내용(직무내용) D31. <취업자 공통> 첫 직장(일자리) 만족도 4- 근무 환경(시설, 안전, 위생상태 등) D31. <취업자 공통> 첫 직장(일자리) 만족도 5- 일하는 시간(근로 시간, 근무 일수) D31. <취업자 공통> 첫 직장(일자리) 만족도 6- 개인의 발전 가능성 D31. <취업자 공통> 첫 직장(일자리) 만족도 7- 인간관계 D31. <취업자 공통> 첫 직장(일자리) 만족도 8- 복리 후생 제도(사회 보험 및 부가급부) D31. <취업자 공통> 첫 직장(일자리) 만족도 9- 인사체계(승진 제도) D31. <취업자 공통> 첫 직장(일자리) 만족도 10-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D31. <취업자 공통> 첫 직장(일자리) 만족도 11- 하고 있는 일의 자율성과 권한 D31. <취업자 공통> 첫 직장(일자리) 만족도 12-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D31. <취업자 공통> 첫 직장(일자리) 만족도 13- 하는 일과 자신의 적성, 흥미의 일치 D31. <취업자 공통> 첫 직장(일자리) 만족도 14- 직무관련 교육 또는 훈련 D31-1. <취업자 공통> 첫 직장(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D31-2. <취업자 공통> 주된 일(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 = "매우불만족" 2 = "불만족" 3 = "보통" 4 = "만족" 5 = "매우만족"	
	첫직장혜택수혜여부	D12. <임금근로자> 첫 직장(일자리)에서의 본인 수혜여부 1- 법정퇴직금/퇴직연금 D12. <임금근로자> 첫 직장(일자리)에서의 본인 수혜여부 2- 유급휴가 D12. <임금근로자> 첫 직장(일자리)에서의 본인 수혜여부 6- 육아휴직 D12. <임금근로자> 첫 직장(일자리)에서의 본인 수혜여부 8- 시간외수당 D12. <임금근로자> 첫 직장(일자리)에서의 본인 수혜여부 9- 상여금 D12. <임금근로자> 첫 직장(일자리)에서의 본인 수혜여부 12- 산전후휴가	0 = "받을 수 없다" 1 = "받을 수 있다"	
	첫직장월평균근로소득	D30. <취업자 공통> 첫 직장(일자리) 월평균 근로소득_만원		
부모의 배경 (SES)	부모최종학력평균	P9. 아버님의 최종 학력 P9. 어머니의 최종 학력	1 = "무학" 2 = "초등학교" 3 = "중학교" 4 = "고등학교" 5 = "2~3년제 대학(초급대)" 6 = "4년제 대학" 7 = "대학원"	
	대입당시부모월평균소득	P11. 대학 입학(편입) 당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개인적 노력	취업준비활동경험여부평균	K1-1. 취업 준비활동 경험여부 0- NCS 시험 준비 K1-1. 취업 준비활동 경험여부 1- 기업체 직무적성검사(SSAT 등) 공부 K1-1. 취업 준비활동 경험여부 2-영어 등 외국어 공부 K1-1. 취업 준비활동 경험여부 3- 봉사활동 K1-1. 취업 준비활동 경험여부 4-공모전 수상 K1-1. 취업 준비활동 경험여부 5-자격증 준비 K1-1. 취업 준비활동 경험여부 6-대외활동(체험단, 마케터, 서포터즈 등) K1-1. 취업 준비활동 경험여부 7-외모관리(다이어트, 시술, 수술 등) K1-1. 취업 준비활동 경험여부 8-이력서 작성 및 면접훈련 교육 K1-1. 취업 준비활동 경험여부 9-(모의)면접훈련	0 = "없다" 1 = "있다"	
	토익		I6-1. 영어시험 점수 1- 토익(TOEIC)	
	청년취업 프로그램	인지여부 평균	O1_1.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O1_1. 행정 인턴제(중앙 행정 기관, 공공 기관 등)	0 = "없다" 1 = "있다"
		참여횟수 총합	O1_1. 취업성공패키지_청년고용정책 O1_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여부 총합	O1_1. 자치단체 청년수당 O1_1.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구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 구 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	0 = "없다" 1 = "있다"
관심정도 평균		O1_1. 대학청년고용센터 O1_1. 내일배움카드(구직업 능력 개발 계좌제) O1_1. 청년취업아카데미 O1_1. 일학습병행제 O1_1.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사업(K MOVE 등)	1 = "전혀 관심없다" 2 = "관심없다" 3 = "보통이다" 4 = "관심이 있다" 5 = "매우 관심있다"	

3. 연구가설

가설 1. 첫 직장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부모의 배경(SES) 요인과 개인적 노력 요인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부모의 배경(SES) 첫 직장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첫 직장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과 개인적 노력 요인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 3. 개인적 노력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부모의 배경(SES) 요인과 첫 직장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 4. 부모의 배경(SES) 요인과 개인적 노력 요인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 5. 첫 직장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과 개인적 노력 요인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 6. 부모의 배경(SES) 요인과 첫 직장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4. 기초통계량

<표 3>은 첫 직장의 질, 부모의 배경(SES)과 개인적 노력 요인의 기초 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기초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첫직장혜택수혜여부	3991	.00	6.00	2.8862	1.84719
첫직장만족도평균	5614	1.00	5.00	3.0562	.81688
취업준비활동경험여부평균	5902	.00	1.00	.3496	.18575
첫직장월평균근로소득_만원	5614	-1	700	170.77	79.176
부모최종학력평균	17026	1.00	7.00	4.8236	1.09332
대입당시부모월평균소득	17781	-1.00	8.00	2.9460	3.02043
청년취업프로그램관심정도평균	14248	1.00	5.00	3.4776	.94043
청년취업프로그램인지여부평균	18271	.00	13.00	3.2849	3.10392
청년취업프로그램참여횟수총합	5963	1.00	102.00	1.8194	2.76529
청년취업프로그램참여여부	14248	.000	6.000	.60324	.825819
토익	5115	-1.00	990.00	779.4688	142.94380
희망하는일자리에서최소소득_연봉	3795	100	300000	3135.00	4965.215

IV. 연구결과

<표 4>은 첫 직장의 질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부모의 배경(SES) 요인이 개인적 노력 요인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파악하기 위하여 편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최종 학력 평균과 토익 점수($r=.254$, $p<.001$)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부모의 배경(SES) 요인은 개인적 노력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는 부모의 배경(SES) 요인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첫 직장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과 개인적 노력 요인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파악하기 위하여 편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적 노력을 구성하는 요인들과 첫 직장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 사이에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는 개인적 노력 요인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부모의 배경(SES) 요인과 첫 직장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파악하기 위하여 편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적 노력을 구성하는 요인들과 첫 직장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 사이에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은 첫 직장의 질, 부모의 배경(SES), 개인적 노력 요인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중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배경 요인 중 부모 최종 학력 평균과 개인적 노력 요인 중 토익 점수($r=0.251$, $p<0.001$)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요인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첫 직장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부모의 배경(SES) 요인과 개인적 노력 요인에 관한 편 상관관계 분석 결과

통제변수	변수		부모의 배경 (SES)	
			부모최종학력 평균	대입당시부모 월평균소득
첫 직장의 질	개인적 노력	청년취업프로그램 관심정도평균	-.063	-.044
첫직장혜택수혜여 부 & 첫직장만족 도평균 & 첫직장 월평균근로소득_만 원		청년취업프로그램 인지여부평균	.000	-.009
		청년취업프로그램 참여횟수총합	.008	.076
		청년취업프로그램 참여여부	-0.176***	-.015
		취업준비활동경험 여부평균	.026	.093
		토익	0.254***	0.156**

<표 5> 부모의 배경(SES)을 결정하는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첫 직장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과 개인적 노력 요인에 관한 편 상관관계 분석 결과

통제변수	변수		첫 직장의 질		
			첫직장만족도 평균	첫직장혜택수 혜여부	첫직장월평균 근로소득_만 원
부모의 배경(SES)	개인적 노력	청년취업프로그램 관심정도평균	.030	.008	.044
부모최종학력평균 & 대입당시 부모월평균소득		청년취업프로그램 인지여부평균	.059	.102	-.059
		청년취업프로그램 참여횟수총합	.018	.068	.022
		청년취업프로그램 참여여부	.145	.180	.134
		토익	-.122	.056	-.093
		취업준비활동 경험여부평균	.063	.067	.047

<표 6> 개인적 노력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부모의 배경(SES) 요인과 첫 직장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편 상관관계 분석 결과

통제변수	변수		부모의 배경 (SES)	
			부모최종학력 평균	대입당시부모 월평균소득
개인적 노력	첫 직장의 질	첫직장혜택수혜여부	.036	.024
청년취업프로그램 관심정도평균 & 청년취업프로그램 인지여부평균 & 청년취업프로그램 참여횟수총합 & 청년취업프로그램 참여여부 & 토익		첫직장만족도평균	.023	.065
		첫직장 평균근로소득_만원	.060	.044

<표 7> 개인적 노력, 부모의 배경(SES) 요인, 첫 직장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다중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		부모의 배경 (SES)			첫 직장의 질	
		부모최종학력 평균	대입당시부모 월평균소득	첫직장혜택 수혜여부	첫직장만족도 평균	첫직장월평균 근로소득_만원
개인적 노력	청년취업프로그램관심 정도평균	-0.037***	-0.037***	-0.080***	-.006	-0.048***
	청년취업프로그램인지 여부평균	-0.038***	-.013	-0.085	.006	-0.085***
	청년취업프로그램참여 횟수총합	.014	.010	.007	-.038	.040
	청년취업프로그램참여 여부	-0.052***	-0.058***	-0.101***	-0.054***	-0.038**
	취업준비활동경험여부 평균	0.060***	0.083***	.036	.041	0.098***
	토익	0.251***	0.138***	0.096***	.044	0.120***
부모의 배경 (SES)	부모최종학 력평균	1	0.129***	0.037*	0.079***	.025
	대입당시부 모월평균소 득		1	0.052***	0.051***	0.106***

V. 결론과 논의

1. 연구 요약과 시사점

데이터 분석 결과, 부모의 최종 학력 평균과 토익 점수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부모의 학력이 높을 수록 자녀의 교육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배경이 동일할 때 개인적 노력 요인과 첫 직장의 질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적 노력 요인이 동일할 때 부모의 배경 요인과 첫 직장의 질 역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배경요인 중 최종 학력 평균, 개인적 노력 요인 중 토익 점수가 첫 직장의 질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나머지 요인은 영향이 없었다.

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토익 점수이고, 그 토익 점수는 유의미하게 부모의 최종 학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토익 점수를 개인의 노력으로 설정하였으나, 이 점수가 부모의 배경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은 연구 시작 시점의 예상과 다른 점이었다.

GOMS 설문지 상에 다른 대중적인 시험 점수가 없어 더 나아가지 못했지만, 토익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학습 성취 전반에 부모의 정적인 영향이 있되, 다른 부모 배경 요인의 영향이 드러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그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수준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2.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먼저 주로 활용한 GOMS 데이터 자체의 한계를 들 수 있다. 2020 년을 기점으로 종료된 조사로서 코로나 시기와 그 이후의 특성을 알 수 없다는 점, 정확히 어떤 대학인지, 어떤 직장의 어떤 부서인지 등 가장 민감한 정보는 알 수 없다는 점 등이다. 또한 첫 직장을 '가볍게' 취직한 경우와 오래 다닐 생각으로 취직한 경우 등 세세한 부분을 알 수 없다는 점도 있었다.

‘배경 요인’에 관해서는, 부모의 학력이 다소 단순하게 조사된 점(무학력부터 대학원까지 7 단계), 부모가 교수나 법조인인 등 사회적 영향이 강한 경우를 분류하기 어려운 점(교육, 법률, 사회복지, 경찰, 소방직 및 군인이 같은 항목으로 되어있음)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더하여 개인의 노력이라고 하면 토익이나 취업 프로그램 등의 참여뿐만 아니라 인턴 활동, 인맥을 쌓기 위한 노력, 비교과 프로젝트 참여, 자격증 획득, 동아리 활동, 기타 자기 관리 등의 노력도 중요할 터인데, 인턴의 종류를 알기 어려운 점, 자격증을 4 종류로 크게 구분하여(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민간자격, 외국자격) 예를 들면 국가전문자격 중 사회적으로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세무사, 관세사와 ‘너무 남발하여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던 ²⁰ 공인중개사가 같이 분류되어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또한 사회과학 연구 방법을 처음 접하는 현실적인 학부생 팀으로서의 한계로, SPSS 를 활용한 기본적인 분석에 머무른 아쉬움도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권역별 분석이나 출신 대학, 고등학교 별 분석도 더해졌다면 보다 엄밀한 연구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토익은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영어능력은 보통 부모의 조기교육이 절대적이어서 ‘수저’를 입증하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토익은 마냥 그렇지도 않다. 외국 유학의 영향이 큰 ‘회화’가 배제된 시험이며, 많은 데이터와 자료, 강의가 축적되어 지방에서도 노력만 하면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기 때문이다.

다른 부분에서 부모 배경의 영향이 드러나지 않은 점도 취업자들에게는 고무적일 수 있다. 생각하는 것만큼 취업 현실이 불공정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정부는 영어능력이 취업에 실제로 얼마나 더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 구직자들이 토익 등의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익한지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노력을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없는지 정책적으로 잘 살펴 헌법에 명시된 공정함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GOMS 와 같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거대 공공 데이터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다. GOMS 가 2020 년 종료된 것은 ‘데이터의 시대’를 맞는 지금 큰 사회적, 학문적 손실인 것으로 생각되며, GOMS 를 보완한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하다.

일자리의 질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던 점도 아쉬운 부분이지만, 보다 큰 관점에서 정부가 ‘모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할 필요도 있다.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²⁰ 황현규, “[단독]공인중개사 문턱 높아진다...자격증시험 ‘상대평가’로 전환”, 이데일리, 2020.12.1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52086625998520&mediaCodeNo=257>

사회적 환경이 좋지 않다면 좋은 결과(질 좋은 일자리)를 얻는 계층은 한정될 것이며, 노력이 의미 없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사회 전체가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는 인적 자원이 전부인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부모의 배경이 의미가 있지만, 개인의 노력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는 상술한 사회적 인식과 배치되는 것으로, 청년들의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연구가 더 심층적으로 진행되고 희망적인 부분을 정부가 성공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면 패배주의적인 사회 분위기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국가지표체계(2023), <https://www.index.go.kr/>, (12.31 접속).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https://www.law.go.kr/>, (12.31 접속).

구성우(2015), "직무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의 특성 변인",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박준우, 여찬구(2022), "대학 청년 졸업자의 취업 성공 결정요인 분석: 전국 5 대 권역을 중심으로", 기업과 혁신 제 45 권 4 호, 3-31

박준우, 여찬구, 우승현(2023), "진로탐색, 취업준비와 취업성공의 관계: 대학 청년 졸업자를 중심으로", 기업과 혁신 제 46 권 2 호, 69-91

박지성, 옥지호(2022), "부모 배경요인이 실제 취업에 미치는 효과: 부모 소득과 학력 수준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529-540

안현수(2020), "대졸자 관측은 일자리 취업결정요인의 비중 변화 분석 -능력중심 채용제도 변화 전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방하남, 이상호(2006), "'좋은 일자리'(Good job)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의 분석", **한국사회학**, 제 40 집 1 호, 93~126

송희, 박자경, 민지식(2021), "직업 및 산업에 따른 임금과 불평등 지수 차이 분석 : 2001~2020 년도를 중심으로", 한국직업자격학회, 제 10 권 제 4 호